

최우선, 절대시

모든 사업에서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해야 한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뜻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자그마한 소비품을 생산하여도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첫째가는 기준으로 삼을데 대하여 늘 가르치신다.

주체 102(2013)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돌아보시던 때의 일이다.

야외물놀이장에 이르시여 물미끄럼대를 타고 지쳐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득 동행한 일군들에게 급강하물미끄럼대를 타고내려오는 사람들가운데 물미끄럼대 주로마지막까지 미끄러져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씀하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주로의 마지막까지 가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옆으로 내려올수 있게 수평부분의 중간에 사다리같은것을 만들어줄데 대하여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해 훌륭한 물놀이장을 일떠세워주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이곳을 찾으시고 인민들이 느낄수 있는 사소한 불편까지 일일이 헤아려 그 대책까지 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이렇게 되어 그후 급강하물미끄럼대의 수평부분의 중간에는 사다리가 설치되게 되였다.

사람들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는 문수물놀이장의 황홀경에 비해볼 때
그 사다리는 너무도 작고 눈에 크게 띄우지도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세계가 응축되어있는것이다.